



#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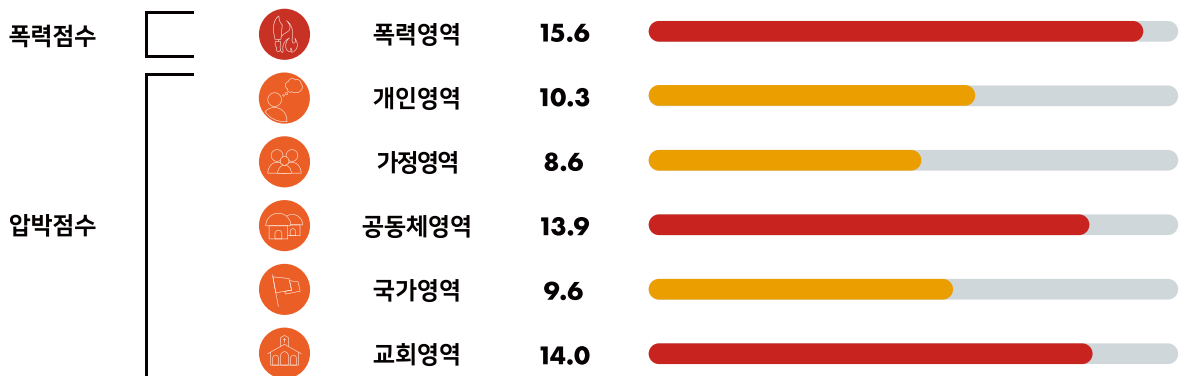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 REPUBLIC)

27위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의 이미 위태로운 상황은 인접국 수단의 임박한 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선거 지연으로 인해 수단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불안정한 정세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수단이 내부 갈등을 겪는 동안 그 여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독교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법과 질서가 거의 붕괴된 상태로, 무법과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넓은 지역을 점령한 무장 민병대는 교회를 불태우고 약탈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해왔다. 이러한 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낸 기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은 안전을 찾아 카메룬과 같은 인접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통치력과 법치의 부재로 인해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집과 생계를 잃고 임시 캠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 차원의 박해가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가족들에 의해 사회적 배척과 신체적 폭력을 겪고 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러한 박해는 종종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 국가 정보

지도자 : 포스탱-아르상주 투아데라 대통령

인구 : 5,916,000명

기독교인 수 : 4,433,000명<sup>1</sup>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4,433,000	74.9
무슬림	800,000	13.54
전통 민속종교	628,000	10.6
불가지론자	39,500	0.7

출처<sup>2</sup>

1960년 독립 이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무장 단체, 종교 및 민족 집단, 유목민과 농민 간의 복합적인 갈등에 의해 지속적인 폭력 사태에 휘말려 왔다. 주로 무슬림으로 구성된 셀레카(SI ka) 그룹은 2013년 쿠데타를 일으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 치명적인 분쟁을 촉발시켰다.

2016년 포스탱 아르상주 투아데라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그는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2019년 정부와 14개 무장 단체 간에 정치적 평화 협정이 체결

되었으나, 2020년 12월 선거를 앞두고 협정은 붕괴되었고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수도 방기(Bangui)만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여러 무장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박해 실태를 추적하는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헌법안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통치를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르완다(Rwanda)와 와그너(Wagner) 용병 그룹의 존재와 영향력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차드 군대 역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다수의 무장 단체들이 서로 동맹을 맺거나 샤키아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들과 결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무슬림 출신의 셀레카 분파들과 자경단체 안티-발라카(anti-Balaka)사이의 충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안티-발라카는 종종 기독교 세력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따르고 있으

<sup>1</sup>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sup>2</sup>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며, 교회는 그들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 무장 세력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범죄 조직의 성장에 대해 언급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2016년 제정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 권리는 유지되고 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하지만, 일부 긴장이 존재한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권리 침해를 겪고 있으며,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셀레카 잔당들에 의한 차별과 교회 공격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안티-발라카 반군도 교회를 공격하거나 자신들의 활동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24년에도 정부군과 여러 반군 세력 간에 충돌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인명 피해와 주민 이탈이 발생했다. 투아데라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 제한을 철폐하려는 시도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이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반군 세력이 수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위기의 새로운 복합적 양상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분쟁에 휘말린 국가들로 더욱 둘러싸이게 되었으며, 자국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제 구호 단체들 역시 이미 여러 불안정 지역과 인권 침해 상황에 대응하느라 자원이 고갈된 상태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에 대한 권리 침해는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고 셀레카 분파들이 활동하는 국가 북부 및 동부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다. 또한 수단과 접경한 동부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이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의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로마 가톨릭교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큰 교파로, 가장 광범위한 교회, 진료소, 학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셀레카 쿠데타 기간과 그 이후에 다수의 가톨릭 교회들이 약탈당했다. 가톨릭교회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으며, 공격을 피해도망친 무슬림과 기독교 민간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톨릭 교회는 공격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았다.

###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은 개종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족들로부터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반대와 압력을 받는다. 대부분은 무슬림 선동자들의 공격을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며, 특히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북부 지역에서 이러한 위협은 더욱 심각하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 및 오순절 교회 공동체는 셀레카 잔당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독교 교단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이슬람억압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은 특히 셀레카 민병대의 분파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이슬람 억압은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사회 전반에서도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조직적 부패와 범죄

이 박해 원인은 안티-발라카(Anti-Balaka) 민병대가 교회와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사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안티-발라카는 원래 자경단체의 집합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 조직으로 변모했다. 특히 수도 방기(Bangui)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거나 폭력 활동을 반대하는 기독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을 자주 공격해왔다. 자신들이 기독교인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 종족-종교적 적대감과 씨족 억압의 결합

이 박해 원인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 1) 애니미즘/아프리카 전통 종교(ATR)에 기반한 종교 및 문화적 요인, 2) 부족 간 갈등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종족적 동기와 종교적 동기가 일반적으로 함께 작용한다. 일부 소수 민족 집단은 특히 표적이 되며, 예를 들어 바아카(Ba'aka) 피그미족은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안티-발라카 그룹은 때때로 기독교인을 그들의 세력에 강제로 편입시키기도 한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수년간의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은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을 성폭행, 인신매매, 납치, 강제 결혼 등 종교적 박해의 형태에 특히 취약하게 만들었다. 성적 학대는 수치심과 정신적 외상, 그리고 종종 임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폭력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 위험 지역의 부모들은 딸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리게 된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가족에 의한 박해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며, 재정적 필요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이슬람식 복장을 강요받고 있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가택 연금이나 노년의 무슬림 남성과의 강제 결혼을 당하기도 한다.

### 여성에게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교육 과정에서의 차별/괴롭힘
- 벌금을 통한 괴롭힘
- 강제 종교 복장 착용
- 강제 결혼
- 표적 유혹
- 인신매매
- 폭력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 남성

남성은 신앙 때문에 살해되거나 과격 민병대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특히 목회자들은 표적이 되기 쉬우며, 허위 고발을 당하거나 예배 중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 남성은 일자리에서 차별을 겪기도 하며,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무역을 통제하며 기독교인 상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독교인 소유의 상점을 약탈하는 등의 행위로 빈곤 상태에 머물게 만든다. 기독교인은 반군에 강제로 징집되거나 국가 군 복무에서 차별을 당하며, 고문과 폭력에 희생되기도 한다. 남성에게 대한 납치, 살해, 위협, 그리고 의도적인 경제적 파탄은 기독교 가정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 남성에게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상속권 또는 재산권 박탈
- 양심에 반하는 군 복무 또는 민병대 징집
- 살해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27	72
2024	28	70
2023	24	70
2022	31	68
2021	35	66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2013년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종종 신앙을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25년 WWL에서 이 나라는 72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보다 2점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승은 전반적인 압박의 증가에 기인하며, 평균 압박 점수는 11.3으로 2024년의 10.9에서 상승했다. 특히 공동체 생활과 교회 생활 영역에서의 압박이 두드러졌다. 한때 종교 관용으로 알려졌던 이 나라는 이제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배척이 심화되는 우려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교회 및 기독교 재산에 대한 공격:** 무장 세력은 점점 더 교회와 기독교인 소유 재산을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 시설이 파괴되고 기독교인 소유 자산이 약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양상은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심각하게 붕괴시키고 있으며, 광범위한 공포와 강제 이주를 초래하고 있다.
-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격:** 지하디스트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 강제 결혼, 성 착취 등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무장 단체의 존재는 특히 기독교 여성들에게 극심한 불안정과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
- **기독교인의 강제 이주:** 지속적인 폭력과 무장 세력의 위협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강제 이주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주한 개인과 가족들은 혼란 속에서 안전과 기본 생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공격 또는 폐쇄된 교회 및 기독교 건물	납치당한 기독교인	강간 및 또는 성폭력 당한 기독교인
2025	67	100*	100*	100*
2024	23	14	100*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 개인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개종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족들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는다.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기도 한다. 셀레카 분파가 활동하는 무슬림 다수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 관련 물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위협받는다. 셀레카 잔당이 가정에 들이닥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살해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 가족 영역

배우자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친척이나 지역 사회는 개종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이혼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종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가족 내 상속권을 상실한다.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부모가 살해되거나 피신한 뒤 남겨진 어린이들이 공격자들의 손에 방치되며, 일부는 잔혹하게 살해되기도 한다.

## 공동체 영역

정부는 여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샤리아 법이 사실상 적용되며, 기독교인들은 자주 차별당하고

있다. 일부 반군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지역 주민을 감시하는 일이 흔하며, 계속되는 분쟁속에서 기독교인들(특히 어린 소녀들)은 공격과 납치의 대상이 된다. 특히 북부 외딴 지역에서는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독교 개종자들과 의료와 같은 공동 자원을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 국가 영역

셀레카 잔당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교통수단 전반이 무슬림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기독교인들의 이동이 매우 어렵다.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회를 오가며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특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차별과 공격을 당하며, 이로 인해 고향과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 교회 영역

정부의 공식적인 감시는 없지만, 민간인들은 다양한 반군 세력에 의해 감시당하며 다른 집단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받는다. 예배 도중 공격을 받거나 교회가 방화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무슬림 다수 지역의 기독교 개종자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과 폭력을 겪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은 신앙을 전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공격을 당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당하기도 한다 (ICCPR 제6조 제1항)
- 기독교 여성과 소녀는 신앙을 이유로 성폭행 및 성적 학대를 당한다 (ICCPR 제7조)
-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은 납치되어 무슬림 남성과 강제 결혼당할 위험이 있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미 국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유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다차원 통합 안정화 임무단(MINUSCA)은 정부군이 풀라니(Fulani) 유목민을 포함한 무슬림을 타겟 삼아 자의적인 체포를 감행하고 구금자들을 학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MINUSCA를 인용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와그너(Wagner) 그룹 요원들이 방기(Bangui)에서 이맘과 그의 사촌을 구금하고 고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무슬림 공동체는 총파업으로 대응했다. 1월에는 와그너 그룹이 나나-그레비지(Nana-Grebizi) 주에서 무슬림 민간인 15명을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분쟁 상황에서 종교 소수집단이 주요 공격 대상은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종교 소수집단 신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오픈도어의 중앙아프리카 사역

오픈도어는 지역 파트너 및 교회들과 함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년간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이후, 이슬람 세력이 주도한 셀레카의 3월 쿠데타로 인한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오픈도어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향해 품고 있는 비전은, 박해와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하고 자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오픈도어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박해 대비 훈련
- 경제적 자립 지원
-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